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벌써 2018년도가 빠르게 지나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후회없이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간 일들을 나누면서 영국에서와 현재 몇가지 변화와 사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Nations의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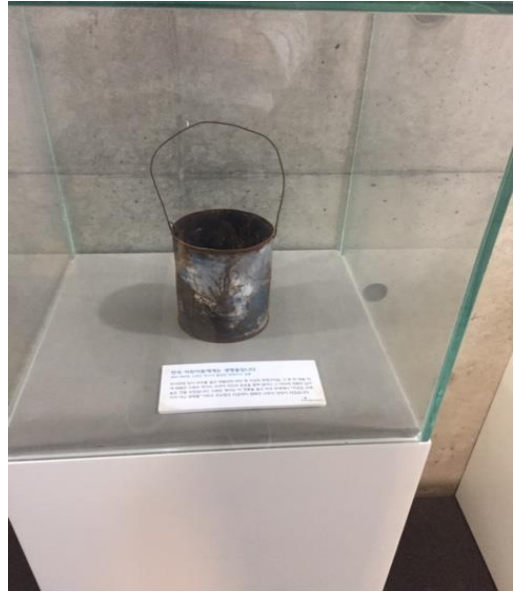
그 간 영국에서 Nations팀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년 선교훈련을 위해 웨일즈까지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선교훈련 강의, 유럽의 기독교 역사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가르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을 위한 찬양 모임, 매주 화요일은 팀 전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영국 웨일즈를 위해 기도하는 현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Shabbat(안식일 기도회)을 가졌습니다. 영국 시골 웨일즈에 지금도 그 땅을 위해 오래 전부터 기도하는 숨어있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쉽게도 중동지역(이집트)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중동 리더십 Training 사역과 그간 준비하던 다른 사역들이 단체 리더인 게일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건강의 어려움(부정맥)으로 취소되면서 그간 준비되고 있었던 모든 사역들이 올 7월부터 일시 연기되고 사역은 잠시 휴식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다행히 지금은 게일 선교사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1년의 새로운 변화와 만남>

영국에서의 사역이 잠시 휴면기를 맞이하면서 저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 사무엘이 남은 학교 학비를 마련하고자 1년간 휴학(Gap Year)을 하고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으로 대학을 준비한 딸 제인 역시 그간 저희와 떨어져 있었던 마음 때문인지 본인도 1년간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뜻밖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1년정도 함께 지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Nations단체와 이 부분을 긴밀히 상의하고 함께 기도한 끝에 영국단체도 가족이 함께 머물면서 새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컴패션(Compassion)**이라는 어린이 양육 NGO(비영리 단체) 선교단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1년의 시간동안 새로운 만남과 사역이 연결되었습니다. 컴패션은 1952년 6.25 당시 한국에 온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 목사님이 굶어 얼어 죽어 길거리에 버려진 수 많은 한국 고아의 시체들을 미군 트럭에서 발견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살리고자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당시 자신의 지갑과 옷을 훔쳐 도망가면서 놓고 간 한 아이의 깡통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던 스완스 목사는 미국 홈 타운으로 돌아와 그 깡통을 들고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 전쟁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고 모금을 시작한 것이 컴패션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25개 가난한 나라(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버려지고 굶주리는 180만 명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기독교 NGO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마침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선교와 목회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던 터라 부족하지만 컴패션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에 머무는 1년정도 함께 사역을 돕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 있는 컴패션 어린이 센터를 방문하고 다녀왔습니다. 컴패션 필리핀은 1972년부터 약 350개 현지 교회가 어린이 센터를 오픈하여 약 8만 5천명의 극심한 빈곤에 있는 어린이들을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깊이 돌보고 있는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붙잡고 올었다는 강통)

컴패션의 주된 사역은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세우고자 전인적(Holistic)으로 교육시키는 어린이 양육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 컴패션은 약 12만명 어린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저는 그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교육받고 자라는지 한국 교회들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팀들을 모아 현지에 가서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현지 센터에서 어떻게 돌보는지 방문하게 됩니다. 또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현지 목사님과 이 사역에 동역하는 스태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이 아이가 한 명의 후원자를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컴패션에 제가 마음을 두고 사역을 함께 하기

로 결정한 이유는 컴패션은 다른 어떤 단체와는 달리 단순한 재정의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 아이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철저히 신앙 훈련을 시켜주는 선교적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NGO 단체들도 이와 비슷한 사역

을 하지만 그 재정이 모두 어린이에게 가는 경우는 드문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는 우물을 만들어 주거나 병원을 지어주거나 인프라를 세워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아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단체는 컴패션이 처음이었습니다.



<필리핀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서 양육을 받고있는 아이들과 그들이 사는 집>

전 세계에 죽어가는 5세미만의 아이들의 사망수가 2016년 UN통계에 의하면 약 650만명이 됩니다. 이는 하루에 약 1만5천명의 아이들이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에 죽어가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1/3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부족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입니다. 물론 지난 2000년 초기에 비하면 약 20%정도가 줄어든 숫자이지만 음식이 풍성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넘치는 현대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의 한해 숫자가 약 200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내년 1월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현지 교회와 어린이 센터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존귀한 한 영혼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고아의 아버지임을 다시 보고 찾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역 역시 한번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기도가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깜짝 선물과 같았습니다. 아마 더 많이 보고 배우라고 허락하신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북 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미나를 시작으로 3,500km의 여정의 유럽 순교의 현장들, 그리고 아직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숨어있는 영국 중보자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캠페션을 통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18년도가 서서히 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속에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경험으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늘 기도로 그리고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몸 된 교회와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간단이나마 그간의 소식을 짧게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케냐의 어린이들을 만나고 오면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넣어드린 유튜브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yAmcr4hv6U> (미리암의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eC4POML95Po> (김정하 목사의 캠페션 이야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류용덕 선교사 드림

2018년 11월 30일